

권위주의 맥락의 담론적 제도주의: 담론적 포섭 모델과 중국 외교담론 네트워크의 경로 전환(2017~2025)

서상민*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의 제도화가 중국 외교정책의 정당화 문법을 '발전-개방'에서 '안보-투쟁'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그 고착 기제를 분석한다. 기존 담론적 제도주의(DI)가 서구 민주주의의 경쟁적 공론장을 전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결정 엘리트의 조정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의 인지적 범위를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권위주의 특유의 기제를 '담론적 포섭(discursive subsumption)'으로 개념화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논의와 결합한 통합 분석 틀을 제시한다. 실증 분석은 2017~2025년 당대회 보고서, 중앙외사공작회의 공식 보도문, 「대외관계법」 등 152건의 핵심 전략 문건으로 구성된 코퍼스를 대상으로 공출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성 분석, QAP 상관관계 분석, CONCOR 블록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안보'와 '투쟁'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발전'을 압도하는 담론 위계의 역전, 공급망·기술 등 경제 의제의 안보 블록으로의 구조적 포섭, 그리고 1국면과 3국면 사이의 낮은 QAP 상관관계수($r=0.312$)로 표지되는 경로의 비가역적 고착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가 단순한 정책 수사의 변화를 넘어 외교정책의 인지적 선택 집합을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총체적 국가안보관, 중국 외교, 담론적 제도주의, 담론적 포섭, 경로 전환, 사회연결망분석(SNA)

I. 서론

2023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외사공작회의(中央外事工作会议)'는 시진핑(习近平) 시기 중국 외교가 직면한 질적 전환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본 회의에서 중국 특색 대외활동의 '법치화(法治化)'와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투쟁(斗争)'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2023년 7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의 입법 취지와 궤를 같이하며, 중국 외교의 최상위 정당화 규범이 '발전'에서 '안보'로 완전히 전이되었음을 대

* smseo@kookmin.ac.kr

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과거 중국 외교의 중핵이 호혜적 협력(互利共赢)과 경제적 개방(对外开放)을 통한 외연 확장에 있었다면, 현재는 대외 관계의 전 영역이 국가안보의 하위 범주로 급격히 포섭(subsumption)되고 있으며, ‘위험(风险)’에 대한 선제적 억제와 투쟁이 외교의 일상적 문법으로 안착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적 전회의 기저에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인식 전회가 자리 잡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화와 서구의 ‘디리스크링(De-risking)’ 압박이 기존의 발전 중심 외교가 더 이상 국가의 존재론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도부의 판단을 강화했다. 이른바 ‘지난 백 년 동안 유례없었던 거대한 변혁 국면(百年未有之大变局)’으로 명명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은 외교를 경제성장의 보조 수단이 아닌, 외부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는 방어 기제로 재정의하게 만든 결정적 동인이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당의 영도력 강화와 ‘정치안전(政治安全)’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강조되면서, 대외 활동에서 실무적 자율성보다 중앙의 통제와 안보적 정합성이 핵심 가치로 부상했다. 즉,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은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안보를 통한 발전의 보장(以安全保障发展)”이라는 최상위 준거를 제공하며 외교 경로의 대전환을 정당화하는 인지적 기반이 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외교는 대외 갈등의 관리와 경제발전 목표의 지원을 우선시하는 ‘발전’ 경로를 장기간 유지해 왔다. 이 경로는 단순히 제도적 관성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외교를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외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특정 정책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인지적·규범적 논리 체계인 정당화 문법(justificatory grammar)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담론적 제도주의(DI)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법은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설명하는 인지적 아이디어와 해당 정책이 공동체의 가치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규범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행위자들에게 특정한 정책 경로를 유일하고 당연한 선택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Schmidt, 2008: 306-308).

그러나 제18차 당대회(十八大)를 기점으로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2012년은 기존의 발전 중심 경로가 해체되고 새로운 담론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었다.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외 환경의 위기를 강조하며 기존의 도광양晦(韬光养晦)에서 탈피하여 ‘안보’를 경제 발전과 대등

하거나 혹은 그 상위에 있는 당-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의제의 전회는 2014년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의 출범과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의 공식 제기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교정책의 정당화 어휘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는 안보 중심으로 구조적 재배열을 겪게 되었다(习近平, 2014;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大常委会, 2015).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경로 전환(path transformation)’은 특정 정책의 일시적 수정을 넘어, 외교정책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연결망의 중심축이 발전-개방(发展-开放)에서 안보-투쟁(安全-斗争)으로 이동하고, 그 이동이 반복적 공식 문건과 법제화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경로 회귀의 인지적·제도적 비용을 결정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과정이다(Schmidt, 2010: 4; Schmidt, 2017: 37-40). 본 연구는 이러한 경로 전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설정된 코퍼스 내의 중국어 공식 텍스트를 분석하여 담론의 구조적 변동을 계량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Leifeld, 2017: 4-6).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가 중국 외교의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함으로써, 이전 경로와의 구조적 불연속성을 어떻게 강제하고 있는지를 실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 Historical Institutionalism)와 담론적 제도주의(DI: Discursive Institutionalism)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우선 역사적 제도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된 발전 우선 경로의 강력한 제도적 관성과 2012년이라는 결정적 분기점을 식별하는 유용한 거시적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HI는 제도 변화를 주로 외부 충격에 따른 외적 결과로 처리하는 한계가 있기에(Pierson, 2004: 133-135; Mahoney·Thelen, 2010: 7-9), 본 연구는 DI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내생적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했는지 분석한다. DI는 ‘안보’와 ‘투쟁’이라는 담론적 혁신이 어떻게 기존 제도의 문법을 재구성하고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추적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제약(HI)과 행위자의 담론적 실천(DI) 사이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게 해준다.

특히 본 연구는 DI를 중국이라는 특수한 정치 환경에 적용함에 있어, 서구의 경쟁적 공론장을 전제하는 기존 모델을 권위주의 체제의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한 ‘담론적 포섭(discursive subsumption)’ 모델을 제안한다. 중국의 당-국가 체제

에서 담론은 수평적 설득보다는 당의 조직규율, 간부평가, 그리고 법제화와 결합한 하향식 정당성 생산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담론의 고착화 강도는 DI에서 주장하는 담론의 질적 우수성보다는 ‘승인된 어휘(authorized vocabulary)’에 의한 인지적 규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기제를 통해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외교 분야에서도 정책 선택의 자유도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안보화(securitization)’를 상시적 통치기제로 안착시킨다(Schoenhals, 1992: 4-10; Buzan et al., 1998: 23-26).

본 연구는 담론의 제도화 과정을 관측가능한 지표로 치환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핵심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경로 전환을 실증한다. 첫째, ‘안보(安全)’, ‘발전(发展)’, ‘투쟁(斗争)’, ‘주권(主权)’ 등 핵심어들의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 변화를 통해 정당성 위계의 역전을 확인한다. 둘째,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기별 담론 구조의 유사성을 측정함으로써 기존 경로와의 단절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셋째, CONCOR 분석을 통한 블록모델링으로 경제 현안이 안보 블록으로 포섭되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을 식별한다.

실증 분석을 위한 코퍼스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국 공식 텍스트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보고(中国共产党全国代表大会报告)』(제19차, 제20차), 중앙외사공작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공식 보도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포함한 핵심 법령, 중국외교부 정례 브리핑 및 주요 외교관의 연설문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총체적 국가안보관’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정책 결정의 인지적 한계를 설정하는 ‘제도적 구속력’을 획득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중국 외교가 직면할 ‘불확실성의 제도화’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习近平, 2022; Zhao, 2023: 245-248).

II. 이론적 배경 및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와 담론적 제도주의(DI)의 변용(變容)

신제도주의의 전통적 분파인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CI), 역사적 제도주의

(HI), 사회학적 제도주의(SI)는 제도의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규명하는 데 탁월한 분석력을 발휘해 왔으나, 제도의 급격한 재편이나 정책 우선순위의 근본적 전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외생적 충격 혹은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변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태적 한계를 노정하였다(Pierson, 2004). 담론적 제도주의(DI)는 이러한 기존 제도분석의 공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아이디어와 담론을 제도 변화의 부수적 매개변수가 아닌 제도 현실을 창출하는 ‘구성적 동력(constitutive dynamics)’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제도 분석의 인과적 지평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다(Schmidt, 2008).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구성적 동력’으로서의 담론은, 객관적 현실을 사후적으로 묘사하거나 정당화하는 수단적 기능을 넘어선다. 담론은 무엇이 타당한 사실이며 어떠한 행위가 정당인지에 관한 사회적 정의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해관계, 나아가 제도의 공식적·비공식적 규칙 자체를 형성하는 원천적 힘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정은 물리적 구조보다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사회적 실재의 상호 구성을 강조하는 사회구성주의의 이론적 계보와 접점을 형성한다(Wendt, 1999). 다만 DI는 관념론적 진술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선택과 제도 변화의 동학을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분석 장치인 아이디어의 층위, 담론의 유형, 행위자와 제도 맥락의 결합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유용성을 갖는다(Schmidt, 2008).

DI의 학술적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초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 아이디어를 정책, 프로그램, 철학의 층위로 분절하고 담론을 정책결정 엘리트 내부의 ‘조정적(coordiative) 담론’과 대중을 향한 ‘정당화(communicative) 담론’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제도 변화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다(Schmidt, 2010). 그러나 이 모델은 담론적 상호작용을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의 핵심 변수인 권력의 비대칭성과 강제력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반하였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면화한 후속 연구들은 담론을 단순한 의미 전달 체계가 아닌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들은 ‘담론을 통한, 담론 위의, 담론 안의 권력’이라는 세밀한 구분을 통해 아이디어적 권력(ideational power)의 다차원적 양태를 분석하였다(Carstensen·Schmidt, 2016). 이러한

논의는 DI의 정치적 역동성을 보완하였으나, 권력이 담론 경쟁에서 어떠한 경험적 흔적으로 투영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떠한 측정 규칙으로 반증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적 정교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최근의 DI는 복합 위기 조건에서 거버넌스와 정당성 위기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Schmidt, 2020). 기후 변화나 에너지 전환 등 위기 정책 영역에서 규범적 아이디어가 제도 경로를 재구축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으나, 논의의 상당 부분이 서구 민주주의의 다원적 경쟁 환경을 경험적 준거로 삼고 있다. 결과적으로 담론의 생산, 유통, 접근이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권위주의적 조건하에서 담론이 어떻게 제도적 구속력을 획득하는지에 관한 보편적 적용력은 여전히 이론적 공백으로 존재한다.

다만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설명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 외교정책 연구의 선행 성과는 중앙의 공식 노선과 실제 정책 결과 사이에 관료 자율성, 부처 이익, 중앙-지방 간 정책 변용이라는 복수의 개입 변수가 작동한다는 점을 충분한 실증으로 확인하였다. 시진핑 시기에도 일대일로(一帶一路) 집행 과정에서 지방과 국유기업의 이익이 중앙 담론에서 이탈하거나, 외교부와 발전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员会) 간 조직 이익의 충돌이 정책 결과를 굴절시키는 현상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반론은 상당한 실증적 근거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학술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소화하려고 한다.

이들 선행 논의들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의 설명 대상은 정책 결과나 실제 외교 행태가 아니라 정당화 문법(justificatory grammar)의 수준, 즉 어떤 어휘와 개념적 연합이 공식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승인되며 그 위계 구조가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한정하고자 한다. DI의 분석 논리에 따르면, 정당화 어휘의 위계가 변화할 때 관료들이 자신의 부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채택하는 논거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 파벌 이익이나 관료 자율성이 소멸하지 않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어휘는 중앙이 승인한 안보 담론의 인지적 범위 내에서 재구성될 때에만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중국 외교정책의 실제 결과가 '안보-투쟁' 논리에 의해 완전히 규정된다는 주장을 함의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입증하고자 하는 명제는 더 제한적이다. 공식 정당화 어휘의 위계

구조가 변화하면, 행위자들이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든 그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어휘의 구성이 변화하며, 이 변화는 정책 선택집합의 인지적 경계를 구조적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핵심적인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슈미트가 제시한 ‘단순 정치체제(simple politics)’와 ‘복합 정치체제(compound politics)’의 구분을 활용하여 중국의 정치 환경을 이론적으로 재배치한다. 제도 맥락에 따라 조정적 담론과 정당화 담론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할 때, 중국은 정책결정 엘리트 내부의 조정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을 선행적으로 규정하거나 압도하는 ‘단순 정치체제’의 사례에 해당한다(Schmidt, 2006; Schmidt,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담론 생산이 당-국가로 일원화된 체제 내에서 정책 공동체의 조정적 담론 결과물이 즉각적으로 사회적 정당화의 표준으로 치환되는 ‘담론적 포섭’ 현상을 가설적으로 제기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변용이 DI의 핵심 전제를 훼손하는가에 대한 논쟁적 검토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담론의 전파 경로가 수직적·위계적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행위자의 인지 구조를 재편하고 제도 선택을 매개한다는 DI의 존재론적 전제는 유효하다고 본다. 오히려 권위주의 체제에서 담론은 단순한 선전(propaganda)에 그치지 않고, 관료적 의사결정의 인지적 지도를 제공하며 책임 귀속과 자원 배분을 조직하는 실질적 규칙으로 기능함으로써 서구 민주주의보다 더 강력한 제도적 구속력을 발휘한다(Schmidt,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담론을 정책 선택집합을 제한하고 실무 관료의 인지적 범위를 강제하는 ‘제도적 강제 기제’로 재정의한다. 둘째, 사회연결망분석(SNA)을 도입하여 담론의 고착화(sedimentation) 정도를 계량 지표로 제시함으로써, DI가 반복적으로 직면해 온 ‘권력의 경험적 포착’과 ‘반증 가능성’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증적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아이디어의 위계와 상호 결합 기제

슈미트에 따르면 아이디어는 세 가지 위계적 수준에서 작동하며, 이 층위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제도의 변화와 재평형을 견인한다(Schmidt, 2010: 4-15). 철학

적 아이디어는 정당화의 원리적 수준을,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문제정의와 인과 논리의 수준을, 정책 아이디어는 구체적 수단과 목표의 기술적 수준을 각각 담당하며, 이 층위들은 단순한 내용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상위 층위가 하위 층위의 정당화 문법과 정책 선택집합을 규정하고 하위 층위가 상위 층위의 의미를 행정 규칙과 법제로 고착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구속적으로 연결된다. 이 기준을 중국 사례에 적용하면, 총체적 국가안보관은 외교의 최상위 목적 기능을 재규정한다는 점에서 철학적 아이디어에, 투쟁의 상시화와 발전-안보 일체화 논리는 문제정의의 인과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아이디어에, 「대외관계법」의 법제화는 행정 규칙으로의 고착이라는 점에서 정책 아이디어에 각각 귀속되며, 그 결과 아이디어는 기존 경로의 안정성을 해체하거나 새로운 경로의존성을 구축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동한다.

첫째, 철학적 아이디어(Philosophical Ideas)는 정치공동체의 가치 질서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최상위 준거 원칙으로서, 제도 변화가 “왜 정당한가”에 답하는 존재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심층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행위자가 복잡한 국제 환경을 해석하는 인식적 지도(cognitive maps)를 구성할 뿐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연속성과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의 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자산이 된다(Schmidt, 2008: 306-307).

중국 외교사의 철학적 궤적은 혁명적 정체성에서 발전의 도구화를 거쳐 안보의 최상위 가치화로 이행하는 정당화 문법의 변천사로 요약된다. 마오쩌둥의 외교는 혁명적 정체성과 국제체제의 세력균형 감각을 결합한 사유의 산물로서, 1950~60년대의 ‘전 지구적 계급투쟁’ 담론은 이념적 선전을 넘어 대내외적 생존을 규정하는 철학적 방어 기제로 작동했으며, 1970년대 미중 전략적 접근은 ‘반 패권주의’라는 담론적 우회를 통해 적대국과의 현실주의적 제휴를 혁명 철학의 내부로 흡수하고 정당화하였다(毛泽东, 1977: 1999).

덩샤오핑은 세계대전의 불가피성을 부정하고 국제 질서를 ‘전략적 기회기’로 재정의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의 무게중심을 이념적 순수성에서 경제적 생산력으로 전이시켰다(邓小平, 1994). 이후 장쩌민의 ‘3개 대표론(三个代表论)’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科学发展观)’은 이러한 ‘발전’ 중심의 정당화 문법을 계승하며 안보를 발전의 종속적 변수로 처리함으로써 경로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 시기 외교

는 도광양회(韬光养晦)의 기조 아래 안정적 외부 환경을 관리하는 보조적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반해 2014년 중앙국가안전위원회(中央国家安全委员会)의 신설과 2017년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명문화는 안보 어휘가 정책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 지배적인 철학적 아이디어의 지위를 획득했음을 방증하는 구조적 단절이다. 이는 국제 정세를 “지난 백 년 동안 유례없었던 거대한 변혁 국면(百年未有之大变局)”이라는 불확실성의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외교의 안보화(securitized diplomacy)’가 철학적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정당화되며, 담론 수준에서 ‘경로 고착(path lock-in)’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习近平, 2022).

둘째, 프로그램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s)는 철학적 가치가 구체적인 정책 장(policy field)으로 투사되는 전략적 가교로서,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와 인과 논리를 제공한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규정함으로써 관료조직의 자원 배분과 평가 기준을 재편한다. 덩샤오핑 시기 도광양회(韬光养晦)와 화평굴기(和平崛起)가 평화와 발전 철학을 실용적 차원의 안정적 외부환경 조성이라는 인과 논리로 번역했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발전과 안보의 일체화 및 ‘투쟁의 상시화’가 안보 없이는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역방향의 인과 논리를 강화하며 외교 현안을 ‘구조적 위협에 대한 대응’의 장으로 재규정한다.

셋째, 정책 아이디어(Policy Ideas)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목표의 기술적 정합성을 다루며, 실제적 경로 전환이 행정 규칙과 법제로 확정되는 층위이다. 이는 상위 층위의 아이디어가 관료체제의 실무 어휘로 번역되어 제도적 규칙으로 고착화되는 결과물이다. 마오 시기 ‘일변도(一边倒)’와 ‘기존 외교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외교 질서의 수립(另起炉灶)’이 서구 중심 질서로부터의 단절을 강제했다면, 현재 시진핑 시기의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 등은 안보 중심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특히 「대외관계법」은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당의 지도권과 국가안보 심사 메커니즘을 명문화함으로써 발전 중심의 실무 경로를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안보 중심 경로의존성을 강화한다(장영희, 2023: 112-115).

담론은 이러한 층위별 아이디어가 생산·조정·전파되는 동적 과정이며, 기능에 따라 정책결정 엘리트 내부의 조정적 담론(Coordinative Discourse)과 대중을 향

한 정당화 담론(Communicative Discourse)으로 구분된다(Schmidt, 2008: 310). 중국과 같은 ‘단순 정치체제(Simple Politics)’ 모델에서는 두 담론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기보다 조정을 통한 정책 수립과 정당화를 위한 사회적 설득이 폐쇄회로식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담론적 포섭으로 개념화한다.

중국 외교사적 맥락에서 담론적 포섭은 당 중앙의 영도하에 조정적 담론의 산출물이 정당화 담론의 표준으로 즉각 전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오쩌둥 시기 ‘일변도’ 선택은 대중적 동원(mobilization)의 수사로 즉각 번역되어 노선의 비가역성을 강화했고, 덩샤오핑 시기 ‘전략적 기회기’에 대한 합의는 관료체제 내부의 대안적 발흥을 제약하는 인지적 규율로 작동했다. 현재 시진핑 시기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서 생산된 안보 중심의 조정적 담론은 「대외관계법」과 〈학습강국(学习强国)〉 플랫폼을 통해 전 사회적 정당화 담론으로 전이되는데, 이 경로는 두 가지 사실로 뒷받침된다. 「대외관계법」 제1조·제10조·제32조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핵심 어휘를 법문에 명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안보 중심 조정담론을 법적 규범으로 고착시켰으며, 〈학습강국〉 플랫폼은 2019년 이후 당원 의무 학습 앱으로 제도화되어 중앙의 정당화 어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공식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人民日报, 2019/01/01).

이 과정에서 정당화 담론은 행위자들에게 ‘안보 이외의 선택지’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인지적 한계선을 설정함으로써 외교정책의 선택적 집합을 축소하고 ‘안보 우선’의 제도적 구속력을 일상적으로 재생산한다(Bourdieu, 1991: 107-109; Zhao, 2023: 251-254).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NA)을 도입하여 이러한 담론의 고착화 정도를 계량 지표로 제시함으로써, DI가 반복적으로 직면해 온 ‘권력의 경험적 포착’과 ‘반증 가능성’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3. 권위주의적 담론 기제와 경로 전환의 실증 분석 모형

담론적 포섭 개념화에 앞서, 슈미트의 단순 정치체제 논의와 중국 사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슈미트의 원래 논의에서 단순 정치체제는 조정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구조적 경향성을 지시하는 것이지, 두 담론이 합일되거나 후자가 소멸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Schmidt, 2006: 98-101). 따라서 중국을 단순 정치체제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조정담론과 정당화 담론의 폐쇄회로식 연결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 당-국가 체제가 이 연결을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적 조건을 추가로 식별해야 한다.

이 조건은 세 층위에서 작동한다. 첫째, 당-국가에 의한 정당화 담론 채널의 독점은 대안적 정당화 어휘가 공식 담론의 위상을 획득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한다. 둘째, 간부 평가 체계와 당 조직 규율은 하급 관료들로 하여금 당 중앙이 승인한 어휘 체계를 자신의 실무 정당화에 필수적으로 채택하도록 강제한다. 셋째, 「대외관계법」과 같은 법제화는 이 전이를 법적 규범으로 고착시킨다. 이 세 조건이 결합될 때, 조정담론의 산출물은 정당화 담론이 수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위 자체를 선형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현상을 기존 DI 모델이 단순 정치체제 논의만으로는 포착하지 못하는 권위주의 특유의 담론 기제로 파악하고 ‘담론적 포섭(discursive subsumption)’으로 개념화한다. 이 개념은 조정담론의 수사적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화 담론의 인지적 가능 범위 자체를 구조적으로 선점하는 문제이다. 단순한 선전(propaganda) 모델과의 차이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선전 모델에서는 행위자의 전략적 순응(strategic compliance)이 가능하나, 담론적 포섭하에서는 어휘 체계의 구조적 배치 자체가 행위자의 인지적 틀을 형성함으로써 순응과 내면화 사이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해소된다(Bourdieu, 1991: 107-109).

물론 전문 관료 체제와 학계 내부의 조정적 담론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나 기술적 대안에 관한 소통이 완전히 부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논의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최상위 철학적 아이디어가 설정한 인지적 경계 내에서만 허용되는 ‘관리된 다원주의(managed pluralism)’의 성격을 갖는다(He, 2006: 142-145; He·Warren, 2011: 271-273). 특히 중앙국가안전위원회와 같은 영도기구 내에서 조정적 담론이 완결되어 당의 공식 노선으로 확립되면, 그 결과물은 즉각적으로 ‘학습강국’ 플랫폼이나 공식 법령을 통해 사회 전체의 유일한 정당화 어휘로 전이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화 담론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적 검토나 존재론적 대안 사유를 허용하는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위의 결정 사항을 무오류의 진리로 승인하는 종속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포섭 기제는 내부의 전문적 이견조차 ‘승인된 어휘’를 통해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듦으로써(Bourdieu, 1991: 107-109; Schoenhals, 1992: 4-10), 행위자들의 인지적 범위를 당의 의도 내로 강제하고 외교 정책의 선택 집합을 체계적으로 축소하여 새로운 정책 경로의 담론적 고착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제도적 구속력을 발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담론 기제가 창출하는 제도적 구속력을 포착하기 위해, 2017~2025년을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에 따른 ‘경로 전환’의 세 국면으로 구분하고 이를 사회연결망분석(SNA)의 계량적 지표로 실증한다(Leifeld, 2017: 4).

다만 이러한 시기 구분은 중국 내 제도 변화를 1차 기준으로 삼되, 각 분기점이 당시 국제 환경의 변화와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2017~2019년의 제19차 당대회는 미중 무역전쟁의 개시와 시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안보 의제화를 가속했고, 2020~2022년의 제20차 당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미국의 기술 통제 강화라는 외부 조건과 맞물려 있었으며, 2023년 「대외관계법」 시행은 이러한 외부 압박에 대한 법제적 응답의 성격을 함께 띤다. 본 연구의 시기 구분은 이 두 차원의 상호작용을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담론적 균열과 초기 의제화 국면(2017~2019)은 제19차 당대회(2017)에서 ‘신시대(新時代)’와 ‘총체적 국가안보관’이 당의 기본 방략으로 확정된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특히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은 기존의 경제 중심적 외교가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이동률, 2018: 35-37), 이는 ‘안보(安全)’ 관련 개념이 외교 담론 네트워크의 핵심 블록으로 진입하여 기존 경로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내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하였다(표나리, 2018: 8-11). 이 시기 조정적 담론은 기존의 ‘발전-개방’ 블록을 매개하거나 포섭하며 새로운 인식적 지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는 SNA 지표상 안보 키워드의 근접 중심성 상승과 발전 블록과의 공출현 빈도 증가라는 계량적 수치로 가시화된다.

둘째, 위계의 역전과 핵심 매개어 강화 국면(2020~2022)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제20차 당대회(2022)를 거치며 안보의 담론 권력이 질적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제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안보 섹션이 최초로

단독 분리된 사건은 ‘안보’가 ‘발전’을 압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기현, 2022: 5-7). 이는 중국 외교가 발전의 보조적 수단을 넘어 체제 생존의 전위로서 ‘안보-투쟁’의 담론 구조를 일상화했음을 의미한다(이동률, 2022: 124-127). 이 과정에서 ‘투쟁(斗争)’은 파편화된 개별 외교 현안들을 안보 담론으로 결속하는 강력한 핵심 매개어(mediating vocabulary) 혹은 담론의 ‘결절점(nodal point)’으로 부상하며, 조정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의 공간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실증한다(성홍수, 2023: 82-85).

셋째, 고착화와 동형화 국면(2023~2025)인데, 2023년 7월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과 그에 따른 하위 법령들의 정비로 인해 새로운 담론 구조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는 단계이다. 「대외관계법」은 외교 분야의 포괄적인 ‘기본법’으로서, 파편화되어 있던 안보 관련 지침들을 법체계 내로 통합하여 안보 중심의 외교 기조를 제도적으로 표준화하였다(장영희, 2023: 112-115). 특히 당의 외교 영도권과 국가안보 수호를 명문화한 법적 장치들은 ‘백년미유지대변국’이라는 지도부의 인식을 실무 관료 체계의 강제적 행동 규범으로 제도화하였다(표나리, 2023: 15-18). 이 단계에서 담론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모든 부처의 의사결정을 관통하는 표준화된 ‘관계 어휘’로 작동하며, 외교 경로의 전환을 정당화 문법의 수준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킨다(Schmidt, 2010: 15-17; Krackhardt, 1988: 359-361).

이와 같은 통합적 분석 틀은 권위주의 체제 내의 권력 비대칭이 어떻게 담론의 위계적 포섭을 추동하고, 이것이 다시 SNA 지표로 가시화되는 고착화 과정을 거쳐 중국 외교의 근본적인 경로 전환을 완성하는지를 규명하는 강력한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다.

III. 담론 구조의 불연속성과 고착화 과정의 SNA 실증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가 중국 외교 담론의 구조적 지형을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실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외교의 최상위 정당화 문법을 규정하는 핵심 전략 문건을 조사하여 구축한 코퍼스를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설정한 세 가지 가설적 국면

인, 담론적 균열, 위계 역전, 고착화 등이 실제 데이터상에서 어떠한 계량적 지표로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계량적 분석 및 시각화 과정은 UCINET 6.0(Borgatti et al., 2002)과 Gephi(Bastian et al., 2009)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중심성 수치와 클러스터링 결과는 연구자가 구축한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 최종 시각화되었다.

1. 자료 수집 및 전처리 과정

본 연구의 실증적 토대가 되는 데이터셋은 중국 외교정책의 공식적 정당화 문법을 표상하는 ‘권위를 갖는 전략 문건(Strategic Authorized Documents)’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분석의 표집 편향(sampling bias)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재현 가능성(replic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으로, 분석 대상은 당 중앙의 노선과 국가 의지를 확정하는 최상위 공식 문건으로 한정하였다. 자료 선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분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건의 ‘제도적 권위’와 ‘담론적 구속력’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았다. 중국과 같은 ‘일원적 의사결정 정치체제’에서 당 중앙의 의지는 공식적인 ‘제법(提法)’을 통해 하부 관료 체제의 인지적 범위를 규정하고 행동 지침을 표준화하는 강력한 제도적 구속력을 발휘한다(Schoenhals, 1992: 4-10). 특히 이러한 정형화된 어휘의 사용은 개별 행위자의 자율적 판단을 당의 공식 노선 내로 포섭하며, 관료 기구 내부의 조정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담론적 구울로 기능한다(Lynch, 1999: 142-145).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는 문건의 범람에 따른 분석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문헌 위계(Strategic Textual Hierarchy)를 적용하여 표집을 정제화하였다. 첫째, 헌법적 권위와 당의 공식 노선을 확정하는 1차 핵심 문헌으로서 제19·20차 당대회 보고서 전문과 「대외관계법」 등 주요 법령을 포함하였다. 둘째, 최상위 지침을 구체적인 외교 전략으로 번역하는 2차 해석 문헌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중앙외사공작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 공식 보도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정당화하는 3차 실행 담론 중 국가주석 및 외교부장의 전략적 기초 강연문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층위별 선정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은 약 8년간(2017~2025) 총 152건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핵심 텍스트 분석은 담론의 미세한 균열과 재배치 과정을 SNA로 포착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미성과 질적 엄밀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Bail, 2014: 475-478). 이러한 텍스트의 선정은 분석 대상의 양적 규모보다는 텍스트가 지닌 정책적 위계와 의미의 밀도가 담론 네트워크의 대표성을 결정한다는 표집 원칙에 부합한다(Krippendorff, 2018: 114-118).

한편 중국 공식 문건, 특히 당 중앙 수준의 전략 문건은 의도적으로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선행연구의 일관된 관찰이다(Schoenhals, 1992: 4-10). 이러한 의도적 모호성은 하부 조직에 해석과 적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기능하므로, 공식 문건의 어휘 변화와 실제 정책 집행의 변화 사이에 일대일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방법론적 과잉이다. 그러나 이 특성은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약화하는 한계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공식 어휘 구조 분석이 갖는 특유한 분석적 의의를 드러내는 전제이기도 하다.

중국 정치에서 어떤 어휘가 공식 문건에 등재되고 어떤 어휘가 배제되는가는 당 중앙이 하부 관료들에게 전달하는 인지적 좌표계를 규정하는 신호로 기능하며, 관료들이 이 어휘 체계를 변용하더라도 그 변용은 승인된 어휘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야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Schoenhals, 1992: 12-15), SNA가 포착하는 것은 구체적 정책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승인된 어휘 위계의 구조적 변동이며, 이것이 바로 DI가 분석하는 담론적 권력의 핵심 경험적 표지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담론의 구조적 변화를 가리는 노이즈(noise)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일상적·반복적인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상위 전략 문건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인민망(人民网)>과 외교부 홈페이지의 공식 아카이브에서 원문 형태로 수집하여 텍스트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원문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 파이썬(Python 3.10) 기반의 오픈소스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인 <Jieba>를 활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는 교착어적 특성이 있어 정확한 의미 단위 분리가 분석의 성패를 결정하므로, 고도의 토큰화(tokenization) 공정을 거쳤다. 특히 중국 정치 담론 특유의 복합 명사와 중국의 표준화한 공식적 정치 수사 방식인 ‘提法’

을 보존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 사전을 구축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제고하였다(Schoenhals, 1992: 12-15). 예를 들어 ‘总体国家安全观(총체적 국가안보관)’, ‘百年未有之大变局(백년미유지대변국)’, ‘人类命运共同体(인류운명공동체)’ 등은 단일 노드로 인식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사 및 일부 동사적 명사만을 추출하였으며, 조사와 접속사 등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어들은 불용어 리스트를 통해 일괄 제거하였다.

텍스트의 분석 노드와 조작적 정의를 위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지형을 표상할 핵심 키워드의 단순 빈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성과 이론적 정합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선 전체 코퍼스 내에서 출현 빈도가 상위 5% 이내인 단어들을 1차 후보군으로 산출한 뒤, 이들 중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수치(Manning et al., 2008: 118-120)가 높은 50개 키워드를 최종 분석 노드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노드 선정 과정에서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된 단어들이 담론적 제도주의(DI)의 세 가지 아이디어 층위(철학, 프로그램, 정책)를 골고루 대표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백년미유지대변국’은 최상위 철학적 아이디어를, 발전과 안보의 일체화 및 투쟁은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그리고 「대외관계법」과 공급망 등은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대변하는 핵심 ‘결절점’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선정 방식은 기계적 빈도 분석이 놓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의 ‘승인된 어휘’ 체계를 분석 프레임워크 내에 명시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계량적 지표가 정책 경로의 질적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론적 장치가 된다(Adcock·Collier, 2001: 532-535; Grimmer·Stewart, 2013: 2-4). 이는 추상적인 정치적 개념이 실제 분석가능한 지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정 타당성의 확보 절차라 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분석(SNA)에서 노드(단어) 간의 연결 관계(edge)를 정의하기 위해 ‘공출현 빈도(co-occurrence frequency)’ 산출 방식을 채택하였다. 공출현 분석은 ‘특정 텍스트 내에서 두 단어가 빈번하게 함께 나타날수록, 두 개념은 연구 대상의 인지 구조 내에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Callon et al., 1983: 192-195). 공출현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 사이의 네트워크 속성이 메시지 발신자의 지식 구조나 개념적 연합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투영한다는 이

론적 가정을 실증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다(Danowski, 1993: 198-201).

먼저 단어 간의 의미적 결합도를 가장 밀접하게 반영하는 분석 단위(window size)로 문장(Sentence)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대외 관계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존재할 경우, 동일한 문장 경계 내에 등장한 ‘안보’와 ‘투쟁’은 하나의 논리적 인과 관계로 묶여 있다고 간주하여 두 노드 사이에 연결 관계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단이나 문서 단위를 경계로 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희석을 방지하고, 중국 지도부의 핵심적인 문제정의 방식을 가장 원자적인 수준에서 포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시기별 인접행렬은 두 가지 핵심적인 성격을 갖는다. 첫째, 가중치(weighted) 네트워크로서,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연결선이 굵게 표현된다. 예컨대 ‘안보’와 ‘투쟁’이 100번 함께 나타났다면, 5번 나타난 관계보다 훨씬 강력한 ‘담론적 응집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비방향성(undirected) 네트워크로서, 이는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를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이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의 담론 블록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인접행렬은 각 국면에서 중국 외교 담론이 어떠한 개념적 동맹을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지도가 된다.

2. 데이터 구성 및 네트워크 기초 통계

본 연구가 분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정한 담론 네트워크의 시기별 기초 통계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이는 단순히 자료의 규모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외교 담론이 지닌 구조적 밀집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당 중앙의 의지가 하부 관료 체계로 전이되는 양상을 계량적으로 포착한 결과이다.

가장 주목할 지표는 네트워크 밀도(Density)의 상승이다. 1국면에서 0.254에 머물렀던 밀도가 3국면에 이르러 0.478로 급증한 것은, 과거 다양한 외교 의제가 개별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공존하던 ‘관리된 다원주의’의 지형이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대신 그 빈자리를 ‘안보’와 ‘투쟁’을 축으로 한 고밀도의 연합 블록이 장악함으로써, 모든 외교적 발화가 당의 공식 노선으로 수렴하는 ‘담론적 동

표 1 시기별 담론 네트워크 기초 통계

분석 지표	1국면 (2017~2019)	2국면 (2020~2022)	3국면 (2023~2025)
분석 문서 수(핵심 문건)	45건	52건	55건
전체 노드 수	50개	50개	50개
총 연결 수(Edges)	312개	425개	586개
네트워크 밀도(Density)	0.254	0.347	0.478
평균 연결 정도(Avg. Degree)	12.48	17.00	23.44
평균 포괄 거리(Avg. Path Length)	2.12	1.85	1.56

출처: 저자 작성

형화(discursive isomorphism)'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평균 포괄 거리의 단축(2.12 → 1.56)은 네트워크 내 임의의 개념이 '안보'나 '투쟁'이라는 핵심 노드를 거치지 않고서는 의미를 형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하는바, 이는 당 중앙의 정당화 문법이 외교 실무의 인지 구조를 완벽히 포섭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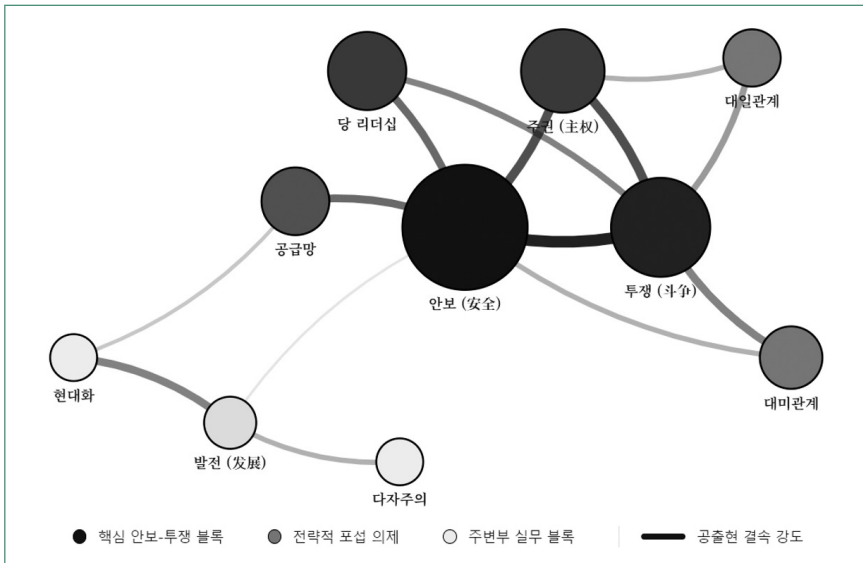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Centrality Analysis)은 담론 네트워크의 위상학적 구조 내에서 특정한 핵심 기표가 점유하고 있는 담론적 지배력(discursive dominance)의 총량을 계량화한다(Freeman, 1978: 215-218; Bail, 2014: 478-480). 분석 결과, 중국 외교의 최상위 정당화 문법은 '발전-현대화'라는 결합에서 '안보-투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블록으로 그 위계가 역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측면에서 '안보' 노드는 '발전'을 압도하며 실질적 허브(hub)로 정착했다. 이는 해당 노드가 얼마나 권위 있는 다른 노드들과 결속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바(Bonacich, 1987: 1172-1175), '안보'가 더 이상 외교의 지류(支流)가 아니라 모든 대외 정책의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최상위 인지적 준거점으로 화석화되었음을 의미한다(장영희, 2023: 112-115). 둘째,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측면에서 '투쟁' 노드의 독점적 지위는 경로 전환의 핵심적 징후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네트워크 내 이질적 정보 블록들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관문'으로 작동함을 뜻한다(Freeman, 1977: 35-37). '투쟁'과 '대미관계'의 결속 강도가 '발전'과 '대미관계'의 결속을 크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제3국면의 핵심어별 고유벡터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제3국면의 중국 외교 담론 네트워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대미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과거의 ‘협력’ 경로는 폐쇄되었으며 오직 ‘투쟁’이라는 인지적 필터를 거쳐야만 정당한 정책 함의가 도출되는 구조로 재편되었음을 실증한다(성홍수, 2023: 82-85).

3. 하위 네트워크의 포섭 기제와 경로의 담론적 고착

담론의 ‘블록화’ 경향과 시기별 유사성 분석을 살펴보면, 새로운 외교 경로가 일시적 일탈을 넘어 어떻게 비가역적인 제도적 평형 상태로 진입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원리에 입각하여 절절절간 상관관계가 수렴하는 지점을 추적하는 CONCOR 분석에서는 담론의 ‘블록화’ 경향이 선명하게 나타난다(Wasserman·Faust, 1994: 376-381).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 네트워크는 안보-투쟁-주권-당 리더십-대외관계로 구성된 ‘안보화된 외교 블록’과 발전-현대화-다자주의-공급망으로 구성된 ‘도구적 발전 블록’으로 양분되는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공급망’ 노드의 전환적 배치이다. 경제적 효용의 범주에 속해야 할 ‘공급망’이 실제 데이터에서는 ‘안보’와의 결합도가 ‘발전’을 크게 상회하며 ‘안보화된 외교 블록’의 하위로 편입되었다. 이는 ‘발전과 안보의 통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수사적 균형에 머물지 않고, 모든 경제적 수단을 국가안보의 하위 도구로 내재화(內在化)하는 ‘담론적 포섭’의 과정을 완결했음을 시사한다(이동률, 2022: 124-127). 이러한 비대칭적 결합은 행위자들의 인식 지도를 안보 중심으로 수렴시켜 대안적 담론의 발흥을 제약하는 인지적 기제로 작동한다. 한편 시기별 인접행렬의 구조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QAP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보면, 담론의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적 고착 상태로 안착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Krackhardt, 1988: 359-361; Schmidt, 2010: 15-17).

표 2에서 보듯, 1국면과 2국면 사이의 상관계수는 0.428로 산출되어 기존 경로로부터의 급격한 ‘담론적 균열’을 확증한다(이동률, 2018: 35-37). 특히 1국면과 3국면 사이의 상관관계가 0.312까지 하락한 것은 중국 외교 담론의 인지적 기저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외관계법」 시행 이후인 2국면과 3국면 사이의 상관계수는 0.785로 급등하며 안정화된다. 이는

표 2 시기별 담론 네트워크 구조적 유사도(QAP 상관계수)

비교 국면	QAP 상관계수(r)	유의수준(p)	구조적 해석
1국면 vs 2국면	0.428	< 0.01	급격한 담론적 균열 및 전환
2국면 vs 3국면	0.785	< 0.001	새로운 경로의 고착 및 공고화
1국면 vs 3국면	0.312	< 0.01	근본적인 경로 전환의 완결

출처: 저자 작성

새롭게 형성된 ‘안보-투쟁-법치’의 담론 지형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으며, 외교 현안을 처리하는 당의 문법이 완전히 새로운 평형 상태(new equilibrium)에 도달했음을 입증한다. 이렇듯 SNA 실증 분석은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가 중국 외교의 문제정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음을 잘 나타내 준다. ‘안보’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철학적 아이디어’로, ‘투쟁’은 현안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로 결합하여, 중국 외교의 정당화 문법을 현 구조적 조건하에서 과거의 경로로 회귀하기 위한 인지적·제도적 비용이 결정적으로 상승한 상태로 재편하였다.

IV. 대미, 대일 담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외교 현안의 경로 전환 사례 실증

SNA 분석 결과는 중국 외교의 전반적인 담론 지형이 ‘안보’와 ‘투쟁’을 정점으로 재편되었음을 계량적으로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담론 전회가 대미 및 대일 관계라는 구체적인 외교 현안(policy fields)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 분석을 통해 실증하고자 한다. 이는 상위의 철학적 아이디어가 개별 정책 영역의 인지적 경계를 어떻게 재규정하고, 기존의 발전 중심 경로를 어떻게 포섭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사례 선정의 배경 및 분석방법

대미 및 대일 관계를 실증 분석의 핵심 사례로 설정한 것은 두 영역이 중국

외교정책의 경로 전환과 고착화를 규명하기 위한 주요 사례(critical cases)로서의 성격과 표본적 대표성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미 관계는 국제 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중국의 담론적 대응이 가장 치열하게 교차하는 영역이다(Johnston, 2019: 132-135).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외적 압박이 지도부의 ‘총체적 국가안보관’이라는 내적 아이디어와 결합하면서, 기존의 실용-발전 경로에서 안보-투쟁 경로로 전환하는 동학을 관측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다. 특히 대미 담론에서의 경로 전환은 여타 외교 영역으로 확산되는 담론적 변화의 근원지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우선순위를 점한다.

둘째, 대일 관계는 역사적·영토적 분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상위의 안보 문법이 개별 현안을 포섭하는 ‘담론 동형화’의 전형을 제시한다. 중국의 거대 전략(Grand Strategy)이 대상국별 전술적 유연성에 우선하여 단일한 정당화 문법하에 대외 관계를 위계화하기 때문이다(김홍규, 2018: 154-156). 시진핑 시기 당의 통제력 강화와 외교 부서의 자율성 축소는 중앙 생산 담론을 현안 블록에 하향식으로 투사하여 외교적 수사의 표준화를 강제하는 ‘담론 획일화’를 초래했고(Economy, 2018: 192-195), 이는 담론 동형화의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중국 외교 담론의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로서의 대미, 대일 담론 분석은 전체 코퍼스에서 대미 및 대일 현안 텍스트만을 선별하여 재구축한 독립적 연결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특정 노드(미국·일본)에 인접한 요소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 현안 영역 내에서 핵심어들이 형성하는 독자적인 위계와 인지적 배치 구조를 규명한다(Knoke, 1990: 9-11; Scott, 2017: 102-105). 즉, 거시 지표에서 확인한 ‘안보’의 우위가 하위 네트워크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제약 기제로 번역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중첩적 분석(nested analysis)’ 전략은 계량적 외연과 맥락적 심층성을 통합하여 방법론적 완결성을 지향하며(Lieberman, 2005: 435-437), 코퍼스 분석으로 식별한 통계적 경향성 위에 질적 사례 분석을 중첩하여 구체적인 인과 기제(causal mechanisms)를 도출함으로써 연구의 내적·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거시 구조의 변동이 행위자의 미시적 담론 실천으로 매개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이와 같은 작업은 구조적 결정론을 극복하고 아이디어의 능동적 역할을 실증하는 담론적 제도주의(DI)의 정합성을 정교화하는 핵심 장치일 뿐만 아

나라 QAP 상관관계 분석의 계량적 엄밀성과 사례 내 일치법(congruence method)의 상호 환류를 통해 계량 지표의 맥락적 공백을 보완하고, 경로 전환의 비가역적 성격을 입체적으로 논증하는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George·Bennett, 2005: 181-183).

2. 대미 담론 네트워크의 안보화와 갈등의 제도화

대미 관계는 중국 외교정책의 경로 전환이 가장 급격하고 비가역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다. 개혁개방 이후 대미 담론이 협력을 통한 발전의 확보라는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하였다면, 현재는 국가의 모든 자원을 안보적 생존에 집중시키는 안보화된 발전(Securitized Development) 패러다임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모든 현안이 체제와 직결된 안보의 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Cheung, 2022: 34-36). 이는 리프(Liff, 2018: 472-47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총체적 국가안보관’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외교와 경제를 포함한 정책 전반을 안보라는 최상위 원리로 통합, 포섭하는 강력한 제도적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시적 이론 논의들은 중국의 대미 전략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핵심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합과 배제의 동학을 통해 새로운 경로의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네트워크 분석이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즉, 거대 전략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실제 외교 부서의 실무적 수사와 어떻게 ‘동형화’되는지를 SNA를 통해 실증함으로써, 관념적 변화가 실제적인 인지적 구속력을 획득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미 담론의 하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론적 가설을 계량적 지표로 치환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미 담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동을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먼저 전체 코퍼스 중 ‘미국(美国)’ 및 ‘미중(美中)’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을 독립적인 분석 대상으로 추출한 뒤, 각 시기별(1~3국면) 단어 공출현 인접행렬을 구축하였다. 이후 결절점 간의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을 식별하는 CONCO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는 행위자(단어) 간의 상관계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피어슨 상관계수 값이 1 혹

은 -1로 수렴할 때까지 행렬을 분할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의 동질적인 블록들을 적출하는 수리적 기법이다(Wasserman·Faust, 1994: 376-381).

분석 결과, 과거 경제·무역과 안보·군사로 선명히 분절되어 있던 대미 담론의 블록 구조가 3국면에 이르러 ‘안보화된 갈등 블록’으로 단일화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1국면(2017~2019)에서 ‘무역 마찰’ 노드는 여전히 ‘발전-협력’ 블록과 일정한 연결 밀도를 유지하며 상호 보완적인 위치를 점유하였으나, 3국면에 접어들면 블록 내 밀도가 급상승하며 ‘안보’, ‘투쟁’, ‘주권’ 노드와 하나의 고밀도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반면 ‘발전’ 노드와의 연결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약화되는 인지적 격리(decoupling)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위협-투쟁-억제-안보’로 이어지는 강력한 담론적 연결이 대미 담론의 핵심부(core)를 형성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는 미중 경쟁을 단순한 이익 갈등이 아닌 존재론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최상위 철학적 아이디어가 ‘투쟁’이라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 현안에 관철된 결과이다. 이러한 담론 구조 내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패권적 압박’으로 정의되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행위는 ‘방어적 자구책’으로 정당화된다(Zhao, 2023: 245-248). CONCOR를 통해 도출된 이 블록 모델의 구조적 견고함은 행위자들에게 협력을 통한 갈등 해소라는 선택지를 배제하고, 투쟁을 통한 안보 확보라는 유일 경로를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적 구속력으로 작동한다.

대미 담론 하위 네트워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표적 변동은 ‘공급망’과 ‘기술’ 노드의 위상학적 이동에서 발견된다.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이 노드들은 ‘호혜적 발전’ 블록의 중핵으로서 ‘시장’, ‘무역’, ‘효용’ 등과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어왔으나, 본 연구의 실증 데이터에 따르면 3국면(2023~2025)에 이르러 이들은 ‘국가안보 수호’ 및 ‘대외관계법’ 노드와 가장 높은 공출현 빈도를 기록하며 안보 블록의 하위 지류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노튼(Naughton, 2021: 156-159)이 지적한 중국의 산업 정책의 안보화와 궤를 같이한다. 과거 경제적 효용의 상징이었던 반도체 및 핵심 원자재 공급망은 이제 미국의 기술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립자강(自立自強) 담론의 인지적 가교로 재정의되고 있다. 특히 리청(Cheung, 2022: 112-115)이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 지도부는 기술 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을 체제 존립의 필수 조건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경제 의제를 안보적 내재화 과정을 통해 포섭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략적 수사의 변화를 넘어, 외교 실무자들이 미국의 기술 제재를 시장의 논리가 아닌 ‘존재론적 공격’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담론적 장벽을 구축한다. 결과적으로 대미 외교의 하위 네트워크 내에서 ‘기술 협력’의 가능성은 ‘기술 안보’의 논리에 의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안전법」 및 「수출통제법」 등 정책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담론 수준에서의 경로 고착을 심화시키는 내생적 동인이 된다(이동률, 2022: 124-127).

3. 대일 담론의 동형화

대일 담론 네트워크는 대미 담론과 비교하여 역사적 반감이나 영토 분쟁이라는 고유한 의제 맥락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의 ‘안보-투쟁’ 문법이 동일하게 고착되는 ‘담론 동형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구스타프손(Gustafsson, 2020: 112-115)은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정체성 구성을 과거의 ‘역사적 가해자’라는 수사적 차원을 넘어, 현재 국제 질서에서 중국의 체제 안보를 위협하는 ‘구조적 타자’로 전이시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일본과 관련된 개별 현안들을 대상국의 특수성에서 분리하여, 당 중앙이 승인한 안보 체계의 하위 범주로 동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특히 자오수이성(Zhao, 2023: 251-254)은 이러한 수렴 현상이 외교 부서의 자율적 정책 기획보다 당 중앙의 인지적 정합성을 우선시하는 ‘권위주의적 담론 규율’의 산물임을 실증하고 있다. 즉, 대일 관계의 특수적 이슈들이 ‘안보’라는 상위 개념으로 포섭되는 과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이른바 ‘승인된 어휘’의 강력한 구속력이 대일 현안 블록을 안보-투쟁의 인지 구조 내로 강제 결속시킨 결과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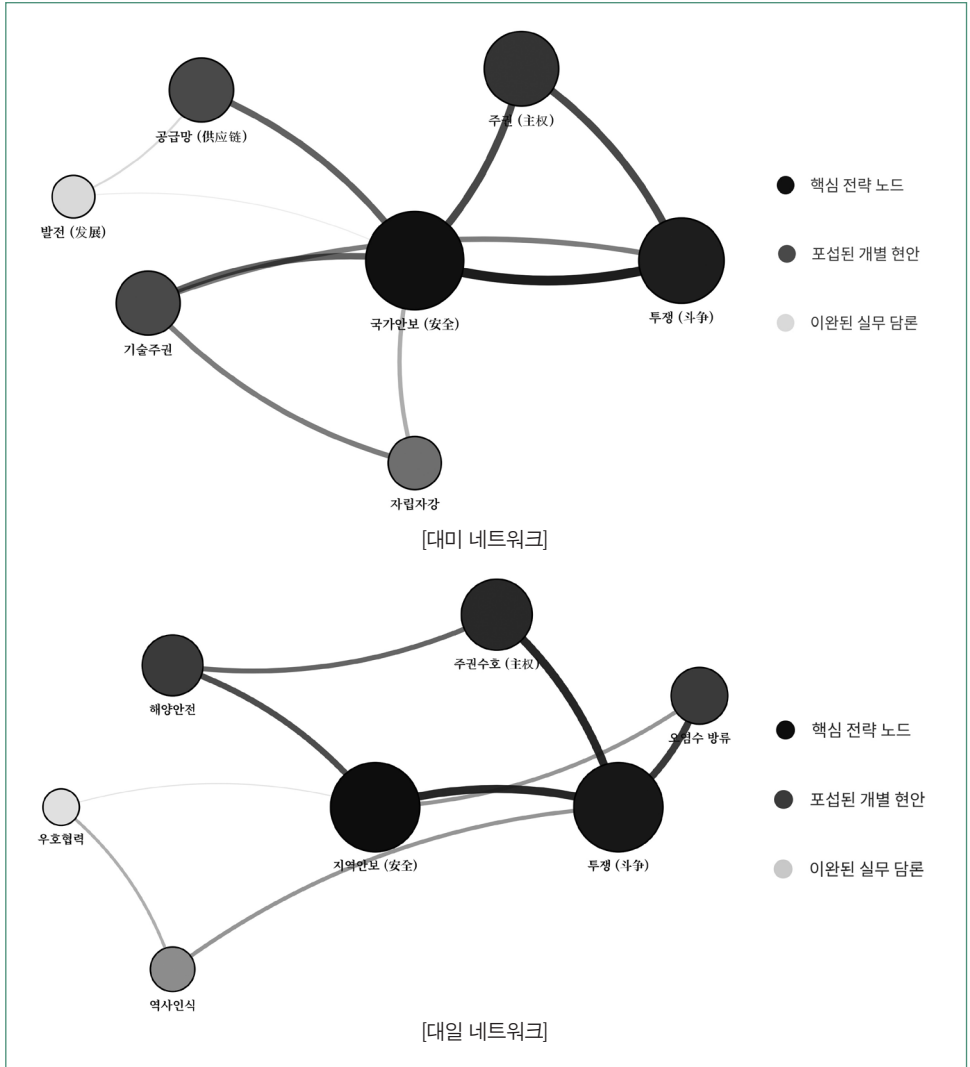
대일 담론 네트워크의 실증 분석은 전체 코퍼스 중 ‘일본(日本)’ 및 ‘중일(中日)’을 포함한 문장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수행되었다. 대미 담론 분석과 동일하게 CONCO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구조적 등위성을 식별한 결과, 대일 관계의 전통적 중핵 의제였던 ‘역사 인식’과 ‘영토 분쟁’이 3국면(2023~2025)에 이르러 ‘지역 안보’ 및 ‘해양 안전’ 블록으로 빠르게 수렴되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SNA 지표상 대일 담론의 매개 중심성 1위 노드가 ‘투쟁’으로 산출된 점은 방법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 노드가 서로 다른 블록 간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는바(Freeman, 1977: 35-37), 이는 과거 ‘우호(友好)’나 ‘협력(合作)’이 점유했던 담론적 ‘관문’의 지위를 ‘투쟁’이 완전히 대체했음을 실증한다.

이러한 ‘투쟁’의 관문화 현상은 대일 관계의 개별 현안들이 당 중앙이 승인한 안보 문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정책적 지위를 획득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Bonacich, 1987: 1172-1175). 예를 들어, 오염수 방류나 방위비 증액과 같은 사안은 분석 데이터상에서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권 수호’와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재정의되며, ‘투쟁’이라는 인지적 필터를 통해 대일 강경 기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수렴된다. 결과적으로 대일 하위 네트워크 내에서 이슈의 특수성은 상위 담론의 정합성에 의해 포섭되며, 이는 자오수이성(Zhao, 2023: 251-254)이 규명한 외교 관료 체제의 자율성 상실과 이데올로기적 동형화를 계량적으로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대미 담론 네트워크와 대일 담론 네트워크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계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QAP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미, 대일 두 하위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각각의 50×50 인접행렬을 대상으로 5,000회의 무작위 순열 변환(permutation)을 수행하였다. 이는 데이터가 지닌 통계적 비독립성(non-independence) 문제를 해결하고, 두 담론 구조 간의 상관성을 정교하게 검증하기 위한 수리적 절차이다(Krackhardt, 1988: 359-361). 분석 결과, 대미 및 대일 담론 네트워크 간의 상관계수는 $r=0.812$ ($p<0.001$)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고도의 구조적 유사성은 중국 외교가 대상국별 특수성이나 현안의 성격에 기초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기보다, ‘안보-투쟁’이라는 단일한 상위 문법을 모든 외교 현안에 기계적으로 투사하는 전략적 표준화(strategic standardization) 단계에 진입했음을 실증한다.

이러한 동형화 현상은 외교 부서 내부의 전문적 자율성이 당 중앙의 인지적 규율(cognitive discipline)에 의해 완전히 포섭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이코노미(Economy, 2018: 192-19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진핑 시기 당의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는 외교적 수사의 표준화를 강제하였으며, 이는 대외 전략이 대상국별 전술



출처: 저자 작성

그림 3 담론 하위 네트워크 비교: 대미 네트워크 vs. 대일 네트워크

을 압도하는 담론적 획일화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Zhao, 2023: 251-254). 결과적으로 QAP 분석을 통해 입증된 고도의 상관관계는 담론적 제도화가 중국 외교의 경로를 특정 방향으로 고착시키는 강력한 내생적 동력이자, 정당화 어휘

위계의 구조적 재배열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Schmidt, 2010: 15-17).

대미 및 대일 관계에 대한 하위 네트워크 실증 분석은 앞서 도출한 거시적 담론 전환이 구체적인 외교 현안 영역에서 어떻게 인과적 기제로 번역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본 분석을 통해 확인된 중국 외교의 경로 전환 양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비가역적 성격을 확증한다.

첫째, 거시 지표에서 확인된 ‘안보’와 ‘발전’의 위계 역전이 개별 현안 하위 네트워크 내에서 ‘인지적 포섭의 상시화’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공급망과 기술 주권 의제가 경제적 효용의 블록에서안보-갈등 블록으로 전환되어 고밀도로 결속되는 양상은, 담론적 제도주의(DI)가 상정하는 ‘철학적 아이디어에 의한 정책 아이디어의 재편’ 과정을 실증한다. 이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외교 현안을 안보적 생존의 렌즈로만 해석하게 함으로써 대안적 정책 구상의 발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둘째, ‘투쟁’ 노드가 대미·대일 관계 모두에서 압도적인 매개 중심성을 유지하며 파편화된 이슈들을 단일한 안보 문법으로 수렴시키는 ‘담론적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정합성의 우선순위가 계량적 네트워크 지표로 투영된 결과이다. 현안의 특수성을 매몰시키고 모든 대외 행위를 ‘투쟁’의 범주로 일원화하는 이러한 기제는, 중국 외교가 지녔던 과거의 유연성을 잠식하고 갈등의 제도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셋째, 대미 및 대일 하위 네트워크 간의 높은 구조적 유사성($r=0.812$)은 이러한 경로 이탈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중국 외교 체계 전반에 내재화된 ‘전략적 표준화’의 산물임을 확증한다. 슈미트의 논의를 빌리자면, 이는 새로운 담론적 문법이 반복적 실천과 법제화를 통해 정당화 어휘 위계의 수준에서 경로 회귀의 인지적·제도적 비용이 결정적으로 상승한 구조적 평형 상태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Schmidt, 2010).

결론적으로 하위 네트워크의 실증 결과는 중국 외교가 과거의 ‘실용-발전’ 경로로 회귀하기 위한 담론적 자원과 인지적 공간을 사실상 상실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담론 층위에서 발생하는 경로 고착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를 정당화하는 문법을 생산한다. 중국 외교의 불확실성은 개별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정당화 문법의 구조적 재배열이 형성한 ‘구조적 평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장기간 유지되어 온 중국 외교의 ‘실용-발전’ 경로가 시진핑 시기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를 기점으로 ‘안보-투쟁’이라는 새로운 경로로 명백히 이탈하였음을 담론적 제도주의(DI)와 사회연결망분석(SNA)의 결합을 통해 실증하고자 하였다. 거시적 수준에서의 SNA 분석 결과는 중국 외교 담론의 핵심 기표가 ‘발전’에서 ‘안보’로 전이되었음을 계량적으로 확증하며, 특히 ‘안보’의 고유벡터 중심성이 ‘발전’을 압도하고 ‘투쟁’이 하위 의제들을 연결하는 단일 매개어(Betweenness)로 부상한 사실은 단순한 수사의 변화를 넘어 외교정책의 정당화 문법이 구조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입증한다. 1국면과 3국면 사이의 낮은 QAP 상관계수($r=0.312$)는 기존 경로와의 단절을 수치로 증명하며, 대외관계법 시행 이후인 2국면과 3국면 사이의 높은 상관성($r=0.785$)은 새로운 담론 구조가 비가역적인 제도적 고착 상태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시적 전회는 대미 및 대일 관계라는 미시적 현안 영역에서 ‘전략적 표준화’를 통해 관철되고 있으며, 하위 네트워크 분석 결과 공급망과 기술 등 과거 경제적 효용의 범주에 있던 의제들이 ‘기술 주권’과 ‘자립자강’이라는 안보 블록으로 완전히 포섭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투쟁’은 현안의 특수성을 매몰시키고 상위 안보 문법으로 수렴시키는 ‘담론적 관문’으로 작동하며, 중국 외교가 대상국별 특수성을 초월하는 보편적 인지 지도를 형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가 지닌 변화 설명의 외적 편향을 담론적 제도주의(DI)의 내생적 동학으로 보완함으로써, 국제 체제의 압박이 중국 지도부의 철학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어떻게 내부적인 정당화 문법의 재구성을 추동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 맥락에서 조직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의 공간을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담론적 포섭’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당-국가 체제 특유의 ‘인지적 규율’이 외교정책의 선택집합을 체계

적으로 축소하고 경로의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기제임을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방법론상 SNA를 활용하여 관념적 변화를 재현가능한 계량적 지표로 치환함으로써, 담론 분석의 객관성과 과학적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정책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중국 외교가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정당화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안보’와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 구조가 법제화와 조직적 규율을 통해 화석화됨에 따라, 외교 실무자들이 유연한 정책 대안을 구사할 수 있는 인지적·제도적 공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 체계가 과거의 ‘실용-발전’ 경로로 회귀하기 어려운 구조적 경직성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며,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서 중국의 행보는 더욱 투쟁 중심의 강경한 일관성을 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본 연구가 확인한 고착화는 정책 결과의 완전한 수렴이 아니라 정당화 문법의 수준에서의 구조적 재배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한다. 관료 자율성, 지방 변용, 부처 간 이익 충돌 등의 변수가 실제 외교 행태를 굴절시킬 가능성은 현 구조적 조건하에서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며, 본 연구의 주장은 이러한 변수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수들이 작동하는 인지적, 제도적 틀 자체가 안보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재배열되었음을 담론 수준에서 실증하는 데 있다. 이와 연동하여, 분석 시계인 2017~2025년은 안보 담론으로의 전환이 완결된 시점이 아닌 구조적 이행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질 생산력’의 강조와 발전 어휘의 지속적 잔존은 이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전 담론의 소멸이 아니라, 잔존하는 발전 담론이 ‘안보를 통한 발전의 보장’이라는 안보 어휘의 하위 범주로 재구성되는 비대칭적 위계의 형성을 입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 공존 자체는 담론적 포섭 기제의 실패가 아니라 그 작동 방식의 전형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적 한계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분석이 공식 문건의 어휘 구조에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실제 자원 배분의 변화, 지방·부처 수준에서의 담론 변용, 다자 외교 영역에서의 동형화 양상은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담론 수준의 구조적 변동이 행위자 수준의 인과 기제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직접 추적하지 못한다는 방법론적 제약을 수반한다. 향후 연구는 공식 정당화 어

획의 구조적 변동과 실제 외교 행태 사이의 간극을 체계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본 연구가 확인한 담론 수준의 분석을 행위자 수준의 인과 기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26년 2월 15일 | 심사일: 2026년 3월 9일 |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31일

참고문헌

- 김홍규. 2018.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전략: 거대 전략의 형성과 인지적 구조.” 『중소연구』 42(1): 145-178.
- 성홍수. 2023. “중국 대미 담론의 안보화와 투쟁 문법: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한 실증.” 『국제정치논총』 63(2): 75-105.
- 이기현. 2022. “중국 제20차 당대회 분석: 안보 주도 발전 패러다임의 제도화.” 『외교안보연구소 주요정세분석』 2022-24: 1-12.
- 이동률. 2018.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전략적 기회기’ 담론의 균열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85: 31-58.
- _____. 2022. “중국의 기술 안보 담론과 공급망 전략: 자립자강의 인과 기제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19: 121-145.
- 장영희. 2023.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법치화와 대외관계법: 담론적 고착화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5(1): 105-138.
- 표나리. 2018. “시진핑 정부의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대외정책의 안보화.” 『중소연구』 41(4): 7-35.
- _____. 2023. “중국 대외관계법의 규범적 성격과 외교적 함의.” 『IFANS Focus』 2023-15: 1-18.
- 邓小平. 1994. 『邓小平文选』 第3卷. 北京: 人民出版社.
- 毛泽东. 1977. 『毛泽东选集』 第5卷. 北京: 人民出版社.
- _____. 1999. 『毛泽东文集』 第8卷. 北京: 人民出版社.
- 习近平. 2014. “坚持总体国家安全观, 走出中国特色国家安全道路.” (4月15日).
- _____. 2022.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 为全面建设社会主义现代化国家而团结奋斗』. 北京: 人民出版社.
- 人民日报. 2019. “‘学习强国’学习平台正式上线.” 『人民日报』 (1月1日).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3.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12月27-28日).
-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大常委会. 2015.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 Adcock, Robert and David Collier. 2001. “Measurement Validity: A Shared Standard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529-546.
- Bail, Christopher A. 2014. “The Cultural Edge: The Diffusion of Cultural Forms through Ego-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9(3): 476-500.
- Bastian, Mathieu, Sebastien Heymann and Mathieu Jacomy. 2009. “Gephi: An Open Source Software for Exploring and Manipulating Networks.”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San Jose. May.
- Bonacich, Phillip. 1987.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5): 1170-1182.
- Borgatti, Stephen P., Martin G. Everett and Linton C. Freeman. 2002. *UCINET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ourdieu, Pierre.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 Buzan, Barry, Ole Wæver and Jaap de Wilde. 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Callon, Michel, Jean-Pierre Courtial, William A. Turner and Serge Bauin. 1983. “From Translations to Problematic Networks: An Introduction to Co-word Analysi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2(2): 191-235.
- Carstensen, Martin B. and Vivien A. Schmidt. 2016. “Power through, over and in Ideas: Conceptualizing Ideational Power in Discursive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3(3): 318-337.
- Cheung, Tai Ming. 2022. *Innovate to Survive: High-End Technology and the Strategic Ambitions of the 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Danowski, James A. 1993. “Network Analysis of Message Content.” in William D. Richards Jr. and George A. Barnett,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Vol. 12, 197-221. Norwood, NJ: Ablex.

- Economy, Elizabeth C. 2018. *The Third Revolution: Xi Jinping and the New Chines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Linton C. 1977. "A Set of Measures of Centrality Based on Betweenness." *Sociometry* 40(1): 35-41.
- Freeman, Linton C. 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 George, Alexander L. and Andrew Bennett.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IT Press.
- Grimmer, Justin and Brandon M. Stewart.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267-297.
- Gustafsson, Karl. 2020. "Identity and Foreign Policy: China's Relationship with Japa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6(1): 110-135.
- He, Baogang. 2006. "The Theory and Practice of Deliberative Politics in China." *World Organizations* 4: 142-148.
- He, Baogang and Mark E. Warren. 2011. "Authoritarian Deliberation: The Deliberative Turn in Chinese Political Development." *Perspectives on Politics* 9(2): 269-289.
- Johnston, Alastair Iain. 2019. "China in a World of Orders: Rethinking Compliance and Challe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44(2): 122-160.
- Knoke, David. 1990. *Political Networks: The Structural Analysis of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ckhardt, David. 1988. "Predicting with Networks: Nonparametr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yadic Data." *Social Networks* 10(4): 359-381.
- Krippendorff, Klaus. 2018.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4th ed. Thousand Oaks: Sage.
- Leifeld, Philip. 2017. *Discourse Network Analysis: Policy Debates as Dynamic Network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eberman, Evan S. 2005. "Nested Analysis as a Mixed-Method Strategy for Comparative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435-452.
- Liff, Adam P. 2018. "China's 'Comprehensive National Security' and Its Foreign

- Policy Implications.” *The China Quarterly* 233: 470-485.
- Lynch, Daniel C. 1999. *After the Propaganda State: Media, Politics, and “Thought Work” in Reformed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ahoney, James and Kathleen Thelen. 2010.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Ambiguity, Agency,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ing, Christopher D., Prabhakar Raghavan and Hinrich Schütze. 2008. *Introduction to Information Retriev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ughton, Barry J. 2021. *The Rise of China’s Industrial Policy, 1978-2020*. Mexico City: UNAM.
- Pierson, Paul. 2004. *Politics in Time: History, Institutions, and Social Analys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midt, Vivien A. 2006. *Democracy in Europe: The EU and National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8.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303-326.
- _____. 2010. “Taking Ideas and Discourse Seriously: Explaining Change throug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s the Fourth ‘New Institutionalism’.”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1): 1-25.
- _____. 2017. “The Role of Ideas and Discourse in European Integration.” *The Palgrave Handbook of EU Crises*: 37-54.
- _____. 2020. “Theorizing Institutional Change and Governance in European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42(8): 1177-1193.
- Schoenhals, Michael. 1992. *Doing Things with Words in Chinese Politics: Five Stud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ott, John. 2017. *Social Network Analysis*. 4th ed. London: Sage.
- Wasserman, Stanley and Katherine Faust.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hao, Suisheng. 2023. *The Dragon Roars Back: Transformational Leaders and China’s Pivot Toward Assertiv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 및 SNA 분석 세부 지표

본 부록은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과정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의 기술적 수치를 상세히 기술하여 연구의 재현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 분석 코퍼스(Corpus) 구성 및 수집 프로토콜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의 담론을 형성하는 핵심 공식 문건을 전수 조사(exhaustive search)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1.1. 주요 수집 대상 및 범위

- 당대회 보고(Party Reports): 제19차(2017), 제20차(2022)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 전문.
- 고위급 회의 문건: 중앙외사공작회의(2018, 2023), 중앙경제공작회의(2017~2024) 관련 공식 보도문 및 담화문.
- 법령 및 규범: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2015), 《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2023),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2023 개정) 등.
- 실무 외교 문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MFA) 대변인 정례 브리핑, 외교부장(왕이 등)의 주요 국제회의 연설문 및 기고문.

1.2. 텍스트 전처리 과정

- 정규화: 수집된 중문 텍스트에서 특수문자 및 불용어(Stop-words)를 제거하고 표준 간체자로 통일하였다.
- 형태소 분석 및 추출: 중문 형태소 분석기(Jieba 등)를 활용하여 명사 위주의 키워드를 추출하되, ‘총체적 국가안보관’, ‘백년미유지대변국’ 등 정책적 고유명사는 복합명사로 처리하여 분석의 왜곡을 방지하였다.

2. 키워드 조작적 정의 및 코딩 가이드라인

네트워크의 노드(Node)가 되는 핵심 키워드는 선행 연구와 공식 문건의 출현 빈도를 결합하여 총 50개를 선정하였다. 주요 키워드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범주	핵심 키워드	조직적 정의 및 포함 어휘
철학적 아이디어	안보(安全)	国家安全, 政治安全, 总体国家安全观, 安全发展 외
	발전(发展)	经济发展, 现代化建设, 改革开放, 互利共赢 외
프로그램 아이디어	투쟁(斗争)	发扬斗争精神, 斗争本领, 反霸权斗争, 正当防卫 외
	주권(主权)	核心利益, 领土完整, 反对干涉内政, 维护主权 외
정책 및 현안	공급망(供应链)	产业链安全, 技术自立自强, 出口管制, 经济安全 외
	대미관계(美中)	美国, 霸权主义, 战略竞争, 新型大国关系 외

3. SNA 기술적 상세 지표(3국면: 2023-2025 기준)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하위 블록별 세부 중심성 지표 및 QAP 상관관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수치는 다음과 같다.

3.1. 블록별 내부 밀도 분석(CONCOR 결과 상세)

- 안보-투쟁 블록(Block 1): 내부 밀도 0.825 (시기별 평균 밀도 대비 1.7배)
- 발전-개방 블록(Block 2): 내부 밀도 0.412 (시기별 평균 밀도 대비 0.8배)
- 해석: 안보 관련 지표들이 발전 관련 지표들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결속되어 강력한 인지적 응집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QAP 상관관계 분석의 순열 검증(Permutation Test)

- 표본 수: 5,000회 무작위 순열 변환
- 관측된 상관계수(r): 0.812 (대미 vs 대일 네트워크)
- 평균(Avg): 0.002
- 표준편차(SD): 0.045
- 유의확률(p): 0.0002
- 결론: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구조적 유사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담론의 표준화 가설을 강력히 지지한다.

4. 데이터 공개 및 재현 가능성 안내

본 연구에 사용된 50×50 공출현 인접행렬 데이터셋과 코딩 프로토콜은 학술적 목적으로 활용할 연구자들을 위해 저자에게 요청 시 CSV 형태로 제공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모든 중심성 분석 및 블록모델링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

Abstract

Discursive Institutionalism in an Authoritarian Context: Discursive Subsumption and Path Transformation in China's Foreign Policy Discourse Network (2017–2025)

Sangmin Seo Kookmin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institutionalization of Xi Jinping's "Holistic National Security" reconfigures the justificatory grammar of China's foreign policy from a development–opening logic to a security–struggle logic, leading to a path departure that becomes difficult to reverse. Build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s insights into path dependence and critical junctures, the study advances an authoritarian adaptation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rough a "discursive subsumption" model, in which elite coordinative discourse vertically absorbs communicative discourse via organizational discipline and legalization. Using a corpus of authoritative Chinese-language texts from 2017–2025 Party Congress reports, official readouts of central foreign and economic work meetings, key laws (including the Foreign Relations Law), and major leaders' speeches—the study constructs word co-occurrence networks and applies centrality measures, QAP correlations, and CONCOR blockmodeling. The analyses demonstrate (1) a reversal in the discursive hierarchy as "security" and "struggle" become central hubs and brokers, (2) a structural discontinuity between earlier and later phases, and (3) the subsumption of economic issues (e.g., supply chains and technology) into a securitized foreign-policy block. Methodologically, the paper shows how discourse network analysis can render ideational power observable in authoritarian settings.

Keywords | Holistic National Security, China's Foreign Policy, Discursive Institutionalism,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Transformation, Discursive Subsumption, Discourse Network Analysis